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17주일  
2021. 07. 25. (나해) 제2278호

# 대구주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2열왕 4,42-44 **화답송**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제2독서** 에페 4,1-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알렐루야. **복음** 요한 6,1-15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정래곤 안드레아 신부

오늘 전례는 요한복음 6장의 시작 부분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앞부분은 빵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러고는 큰 바람이 불 때 호수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으신 이야기와, 당신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알려주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빵의 ‘상징’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먼저 감사의 기도와 함께 축복하셨다고 요한 복음사가는 강조합니다(11절 참조).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는 ‘에우카리스테인(εὐχαριστεῖν)’이라는 동사인데,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 장면을 통해 생명의 빵이라는 커다란 상징 안에서 성찬례가 미리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에는 무명의 한 아이가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역시 사도들처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분의 제자들이 신앙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과 행동,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안에서 천주교 신자다운 삶, 사도직을 수행하라는 요청을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오늘 복음의 사도들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수많은 부족함을 지닌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사명 안에서 그분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주님께서 하시지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만큼의 빵과 물고기를 거룩하신 당신 손에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부족한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 세상의 많은 이들을 위해서,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궤**

## 야곱 I (창세 25,19-35,29)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강수원 베드로 신부

고대 근동의 현인들에게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적절한 때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코헬렛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느님이시라 고백합니다(코헬 3,1-15). 성조 야곱의 삶은 바로 이 ‘때’를 올바르게 기다리지 못해 고난을 겪었던 시절과, ‘때’를 기다리며 하느님을 신뢰하는 성조로 살아간 시절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야곱의 삶은 우리 자신을 비추어볼 수 있는 거울이기도 하지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의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시는”(1코린 1,28) 하느님은 이미 모태에서 작은아들 야곱을 자유로이 택하셨습니다(창세 25,23). 장차 하느님의 백성을 그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창세 32,29) 그리고 “야곱 집안”(탈출 19,3; 이사 2,5; 루카 1,33)이라 부르게 될 만큼, 위대한 성조로서의 삶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한 젊은 시절의 야곱은 전형적인 찬탈자였습니다. 형 에사우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후로(창세 25,26), 허기진 형을 피어 맏아들 권리를 넘기겠다 맹세하게 하고(창세 25,29-34), 연로한 아버지를 속여 하느님의 축복을 훔친(창세 27,1-29) ‘영리한 사기꾼’일 뿐이었지요. 사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지 못한 것은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관습대로 맏아들 에사우에게 축복을 전하려 한 아버지 이사악, 야곱의 운명을 알면서도 기다리지 못해 그를 부추긴 어머니 레베카, 하느님의 축복을 업신여긴 형 에사우, 모두가 하느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 뜻대로만 행동할 때, 가정의 평화와 일치는 무너져버렸습니다. 시련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머물며 준비하지 못한 자신에게서 오는 법이지요.

하느님께서서는 여전히 제 살길만 찾아 도망치던 야곱에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약속하시며 ‘기다림’의 덕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창세 28,10-22). 이후로도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이용당하는 20년이란 세월 속에서, 하느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삶을 묵묵히 배워나갔지요. 마침내 야곱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는 온전히 자유로운 분임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분 안에서 깨어 준비하는 것임을 배웠고, 그렇게 더 이상 ‘뒷발꿈치 야곱’이 아닌 ‘성조 야곱’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기다림이 아닐까 합니다. 수동적이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느님을 희망하길 지치지 않는 삶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알지는 못해도 그 ‘때’를 정해 두셨음을 믿기에, 나의 완성을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완성을 깨어 기다리며 부단히 준비하는 삶에 우리 구원의 길이 있겠지요.

마침내 야곱은 맏이가 아닌 넷째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을 전하는 해안을 지닌 성조가 되었고(창세 49,8-12), 바로 그 유다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설레는 마음으로 매일 하느님과의 만남의 ‘때’를 잘 기다리고 맞이하면서, 구원을 잉태하는 날들을 이어가길 희망합니다. **필문**

## 필사(筆寫) 필생(必生)!

모화본당 | 장세련 아녜스

노트북이 보편화되면서 글씨를 쓸 기회가 거의 없어졌다. 또박또박 눌러쓴 글씨는 얼마나 정갈한가? 성경 필사를 시작한 것은 그에 대한 아쉬움에서였다. 성경 필사로 몇 가지 생활의 변화가 생겼다. 우선 틈날 때마다 성경을 펼치는 버릇이 생겼다. 그럴수록 천주교 신자는 성경과는 먼 사람들이라던 말에 부끄럽게도 고개가 끄덕여졌다. 미사 때마다 들던 성경 구절을 다시금 새겨읽으면서 구약의 약속과 계명들이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시편의 내용들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새김이 그대로 생활에 반영되진 못했지만 반성의 기회가 잦아졌고, 주변에 대한 애정의 시선도 늘었다.

글씨에 정성을 들이게 된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변화다. 성경을 쓰는데 글씨를 함부로 휘갈길 수는 없었다. 하느님의 말씀을 옮긴다는 생각 탓에 글씨를 반듯하게 쓰려고 노력했다. 한 자 한 자 또박또박 반듯하게 썼다. 이런 정성은 생활 전반에 시나브로 스며들었다. 그릇을 닦는데도 조심스러워지고, 걸레질도 꼼꼼해졌다. 왈카하던 목소리는 줄이고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신경 쓰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성경을 쓰면서 가지게 된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활 전반으로 옮겨지는 것 같다.

느긋해진 마음이 흐뭇함을 더한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필사를 마치는 날짜부터 정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루 분량은 채우려고 애썼고 계획대로 되었다. 그런데 사람의 일에는 늘 변수가 있는 법.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겼다. 발목 수술로 입원이 길어져 거의 일 년 동안 필사는 엄두도 못 냈다. 빨리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누워 지내면서도 성경을 펼쳤다. 읽는 것 밖에 할 수 없었음에도 성경이 위안이 됨을 새삼 깨달았다. 스스로 정한 기한의 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다. 꼭 정한 시간에 정한 양의 밥을 먹어야 영양공급이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성경도 마찬가지였다. 얼마나 새기고 행하느냐에 따라 영혼의 양식이 되느냐 마느냐가 정해지는 것이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의지도 생겼다. 나이가 들면서 익숙하던 것 외에는 크게 흥미를 갖지 못하던 터였다.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 때문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가 두려웠다. 성경 필사는 이런 조바심을 조금씩 사라지게 했다. 두께만 봐도 위압적인 이 책의 필사만으로도 대단한 도전인 듯하다. 이제 절반쯤 필사를 진행하고 보니 꼭꼭 눌러쓰기만 해도 힘이 생긴다. 어떠한 일에도 좌절하지 않을 것 같다. 나를 다시 일으켜주실 주님을 날마다 만나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시편 80,9) **필문**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백원’(伯源)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손경운(孫敬允) 제르바시오는, 1760년 한양의 양인(良人) 집안에서 태어나 안국동에서 약방을 운영하면서 생활하였다. 1790년 최필공 토마스로부터 교리를 배우고 천주교에 입교한 그는, 이듬해의 신해박해 때 최필공, 최인길 마티아 등과 함께 체포되어 형조에 갇혔다가 석방되었다.

석방되자마자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한 제르바시오는 아우인 손경옥 프로타시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함께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였다. 그러다가 1796년에 다시 형조에 체포되어 여러 차례 형벌을 당한 후 석방되었다.

제르바시오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석방된 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일을 도왔다. 또 주문모 야고보 신부로부터 회장에 임명된 후에는 자신의 직분을 열심히 수행하였다. 그는 최창현, 최필공을 비롯하여 홍익만 안토니오, 김이우 바르나바 등과 함께 공동체 활동을 하였으며, 정광수 바르나바를 도와 신부가 거처할 집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자주 주문모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하였다.

이후 제르바시오는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아주 큰 집을 매입하였다. 그런 다음 바깥채는 술집으로 꾸미고, 안채는 교우들을 불러 가르치는 장소로 삼아 효과 있게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였다. 그리고 틈틈이 교리서를 베껴서 교우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손경운 제르바시오 회장은 1801년의 신유박해가 시작되자마자 ‘천주교의 우두머리’로 밀고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아우와 함께 경기도의 양근, 교하, 양지 등지로 피신해 다니면서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자기 대신 처자가 포도청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죽음을 무릅쓰고 관청에 자수하였다.

제르바시오 회장은 우선 포도청에서 갖은 형벌과 문초를 받게 되었다. 이때 그는 형벌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음이 약해졌으나, 형조로 이송되어서는 전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굳은 신앙으로 모든 시련을 극복하였다. 그런 다음 동료들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고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02년 1월 29일(음력 1801년 12월 26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42세였다. 사형 선고 받기 전에 그가 한 최후 진술은 이러하였다.

“일찍부터 천주교에 깊이 빠져 하루아침에 이를 바꾸기가 어려웠고, 일상의 고질병처럼 되었습니다. … 저는 천주교 때문에 여러 번 체포된 후에도 나라의 금령을 무시하여 미혹된 마음을 바꿀 줄 몰랐습니다. 교우들과 체결하여 깊이 교리를 연구하였고, 널리 교리를 전하였습니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손경운 제르바시오  
(1760~ 1802년)

THE PASSION

# 한국인 김대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시작되려고 합니다.”

## 2021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YouTube

성 김대건 신부의 서한을 중심으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다큐멘터리 '한국인 김대건'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 18. 가정의 현실과 도전 ⑨

그 누구도 혼인을 바탕으로 하는 자연 공동체인 가정의 약화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배타적이고 불가해소적인 결합만이 안정된 헌신으로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 온전한 사회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약화는 개인의 성숙, 공동체 가치의 함양, 도시와 국가의 도덕적 발달에 위협이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는 가정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사실혼이나 동성 결합을 단순히 혼인과 동등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이거나 생명 전달에 달려 있는 결합은 사회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기쁨』, 52항)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 내게 필요 없는 물건 나누기 - 내가 머무는 공간에 불필요한 물건 정리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 말씀의 해 안내지 28호 정답

1.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집을 비롯하여 주님의 궤를 모셔 들인 곳은 거룩하니, 내 아내가 거기에 살아서는 안 된다. 2. ① 3. 여호사팟 4. ③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박성규 엘리지도

여수님께서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

보리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그리고 보니 ...

주님께서 이 작은 것으로도 ...

여수님께 맡겨드리면 ...

## 미사 안내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26일(월) 10:30 범어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7월 27일(화) 14:00 신암성당
1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26일(월) 11:00 계산성당		7월 27일(화) 19:30 다사 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26일(월) 11:00 봉곡성당		7월 28일(수) 10:00 죽도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26일(월) 11:00 도량성당		7월 28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 성소 | 피정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8.1(일) 09:3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대상: (만) 19세~35세

문의: korvocation@columban.or.kr

####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 피규린과 함께하는 마태오 통독 피정

일시: 8.14(토) 9:30~17:00

장소: 바틀로교육센터(파동)

대상: 청년(남/여) / 마감: 8.8(일)

문의: 바틀로교육센터, (010)9861-6691

#### 피정\_하느님의 작품인 나를 찾아

일시: 8.15(일) 13:30~17:30

장소: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대구분원

(삼덕성당 옆) / 회비: 5천원

대상: 청년남녀 누구나

문의: (010)5139-1984

### 교육 | 모집 | 기타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기간: 2021.8.23~2022.3월

내용: 기계가공, CAD/CAM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대상: 15세 이상 / 문의: (02)828-3600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9.2%

#### 예수회센터 동영상 녹화 강의(9월 개강)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가톨릭 신앙과 영성, 꿈을 통한 영적 치유,

영신수련 정기강좌, 구약성경 아카데미,

성경대학, 영적성장을 돕는 신학적 토대

<http://center.jesuit.kr>

##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 2021년 2학기 성경 및 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개강: 8.31(화) 각 강좌 요일별 개강 | 신청: 8월 31일부터 한 달간 |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남산동) 강의동 2층 | 수강료: 과목당 7만원(2과목 이상 과목당 6만원) | 문의: 가톨릭신학원, 660-5105

시간	화	수	목	금
10:00 ~ 12:00	동양고전 [주역 입문]	종교철학 산책	바오로서간	신약성경입문 영성신학
14:00 ~ 16:00	신학 입문 교회 음악	성경 읽는 재미	역사서 그리스도론	
19:30 ~ 21:30	가톨릭교회 교리서해설		가톨릭서간	

※ **DoM** 카페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을 검색하세요. ※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알트만**  
38년 전통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대구연세안과**  
백내장 / 노안 / 라식 / 녹내장 / 망막질환  
대표원장 박중원 (소시모)  
(현 연세대 외래교수)  
인과전문 의 서재신 (베드로) · 장주현 (바비안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메타워 4~6층  
☎ 053) 626-8881~5

**암·면역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1688-7667

가톨릭피부과의원  
Catholic Dermatology Clinic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신속진료 및 레이저 전문 진료과장 초빙!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종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한성희(디오니시오) 신부  
1981년 7월 26일

행사 | 모임

바느질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일시: 7.29(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대안성당

교육 | 모집

파스카 청년성서 팀공부 모집

성경 공부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임입니다.  
단계: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 대상: 청년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64-2030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취득반 모집

기간: 9.3(금)~12.5(일)  
시간: 금 18:30~22:20  
토·일 13:30~21:50  
대상: 19세 이상 누구나  
문의: 대가대장례교육원, (010)2754-4404

제32기 대구가톨릭대 차이나포럼 원우 모집

입학 및 개강: 10.18(월) 19:00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2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진료안내, 공급실, 기타  
대상: 만 65세 이하 건강한 남·여  
(비신자 포함)  
담당: 류요한 신부  
문의: 650-4442 / (010)6565-6672

포콜라레 영남 온라인 마리아폴리

일시: 7.30(금)~8.1(일), 총 6시간  
주제: 행복의 열쇠, 내어주는 사랑  
접수: 7.5(월)~27(화)  
신청: <http://www.focolare.or.kr>  
문의: 포콜라레, (010)7670-3111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 주말

388차: 8.20(금)~22(일)  
장소: 한티포경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성지안내 봉사를 위한 천주교회사

일시: 9.3~12.3 매주 금 19: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사: 이찬우(다두)신부  
회비: 6만원(교재비 별도)  
문의: 성지안내봉사회, (010)4300-8767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다시 읽는 구약성경(탈출기, 신명기):  
수 14:30~16:30(9.1 개강)  
심화반(시편과 묵상): 월 10:00, 19:30  
문의: (010)3311-2672 / (010)8750-6573

사제와 함께하는 도보순례

일시: 매주 토 17:00~21:00  
(평일도가능)  
코스: 문경새재도보(8km), 순례 중 미사  
참가비: 1만원(숙식제공) / 10명(선착순)  
문의: 문경성지담당, (010)9944-0145

채용 | 안내

경산성당 사무장 채용

자격: 1종 면허 소지자, PC(엑셀)  
가능자, 신앙생활에 충실한 자  
서류: 이력서, 자소서, 교적증명서  
마감: 7.31(토)  
문의: 813-0516

중리성당 지휘자 채용

업무: 주일 교중미사 지휘  
연습: 매주 수 20:00  
문의: (054)977-1225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위·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진료까지  
당일진료 가능합니다.  
검진센터: 670-5959  
(09:00~17:30)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8~9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익학박사  
전문 의 김 덕 영 (스테파노)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배대욱(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장 윤 제  
연 합 치 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바른 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주차 10대이상 완비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특화진료  
·정형외과  
·심장내과  
·건강진단  
·고양이특화  
·아간증급  
대구광역시 달성구 경성동 280-5 (아미트 감성빌 맞은편)  
대표원장 이세원(투카) 053-571-0075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원할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문의 053)250-3158, 252-5392

목, 허리, 어깨, 무릎 통증치료전문  
**서울에이스통증의학과**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 전문  
(최신 체외충격파 치료기 도입)  
목 / 허리통증 / 오십견 / 무릎관절염 / 스포츠 손상  
원장 권 임 치(안드레아)  
진료과목 :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대구 아영로 46 [산림동 214-1] 2층 Tel 053-954-7582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묘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 원 장 이 동 구 (마티아)

일월매트총판 | 대형선풍기  
이동식어어컨 | 게르마늄매트  
소금좌욕기 | 전자제졸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통단지 45 전자판 18 2390